

한지로 불교메시지 표현

성목스님·함순옥·임효·김영희씨등 작품 '눈길'

질박한 종이 장점 살려 회화·조각분야서 활용

한지를 이용 불교적 주제를 전달하는 화가들이 화단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지가 갖는 순수성과 안온한 질감을 자신의 작품에 도입시키는데 '성공'한 화가로는 함순옥씨와 임효씨가 꼽히고 있다. 또한 닥종이 인형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김영희씨도 '동자상' 등을 통해 한지와 불교적 조소의 가능성을 보여줬었다.

이들은 한지가 한국화가들에게 가장 친근한 그림판으로 애용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한 단계 앞서는 작가들인 셈이다. 최근 전시를 마친 임효씨의 경우, 도부조라는 새로운 영역의 개척과 한지의 질박함을 살려 '한지부조의 조형성'을 일군 작가로 자리잡았다.

그의 작품은 주제의 담백함과 질박한 손맛을 일깨워주면서 불교적 메시지 전달에 매우 인상적인 효과를 거

두었다는 평을 듣고있다.

지난 5월31일부터 6월8일까지 전시회를 가졌던 함순옥씨도 '불교적 소재'와 '한지부조의 조형성'을 성공적으로 보여낸 작가다. 함씨는 석고판등을 직접 제작, 기계적인 감각을 완전히 배제시킨 부조판에서 든 한지의 형상들로 신선한 충격을 화단에 던져 주었다. '승무' '른스님' '스님' 등의 작품을 통해 함씨는 한지의 담백함과 불교적 인상들을 매우 내밀한 작가적 감성으로 묶어 내는데 성공했던 것.

미술평론가 오세권씨는 함씨의 이 같은 작품에 대해 "그런다는 의미에서 벗어나 종이로서 형태를 만든다는 의미이며 그 형태는 붓을 통해서 그려져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종이로서 형태를 본뜬다는 의미로 변화한 것"이라며 새로운 시도에 대한 회화

이 밝다고 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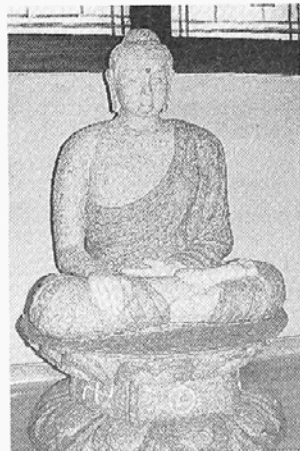
한국화가들의 한지에 대한 새로운 조형화 작업은 단순히 기교적인 도전이기보다는 불교나 사주의 세계라는 주제 전달의 극대화를 위한 끝없는 예술적 탐구란 것이 평가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한지는 조소분야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한지를 이용, 불·보살상들을 조성하는 성목스님은 시집 '따오는 이 밤에' 수필집 '결광 하나로 넘는 세월은' 등을 펴낸 승려문인이다. 스님은 3년전부터 종이 부처님 만들기에 열력을 세우고 있다. 조소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이 분야에 전문도 없고 시도한 사람도 없어 기도하며 새로운 창작법을 그안해 내고 있다'는 스님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본격적으로 창작품을 조성, 전시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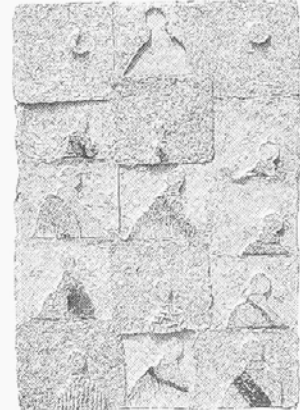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님의 상계등에 세운 포교당 '산이 깊은 절' 법당에 모셔둔 아미타불상, 10대제자상, 지장보살상, 미명보살상은 한지중에서도 화선지를 붙여 풀어 풀고 섞은 뒤 조성한 것들이다. "획일적인 금동불상과 다른 포근한 부처님을 모시고 싶어 시작했다"는 것이 스님의 작업동기지만 본격적인 조소작업을 향한 의지는 매우 강했다. 스님은 천연색소를 한지에 배합시켜 다양한 색상의 거북조성도 시도할 계획이다.

한지가 갖는 속성과 질감들의 특성 때문에 불교를 주제로 하는 미술가들이 앞으로도 다양한 기법을 개척할 것으로 보인다.



성목스님작 '아미타불상'



함순옥작 '스님'

불심시심 <23>

손가락에 달이 있나

百千經卷如標指 (백천경권여표지)
因指當觀月在天 (인지당관월재천)
月落指忘無一事 (월저지망무일사)
帆來突飯因來眠 (기래우반근래면)

백천의 경전 손가락 같아서
손가락 따라 하늘의 달 보네
달 지고 손가락 있어 한 일도 없으니
배고프면 밥먹고 피곤하면 잔다

서산대사의 큰 제자의 한 분이었던 소요(逍遙)대사의 시이다. 대사의 시에는 선기의 묘체를 읊은 것이 많다. 이 시도 깨달음의 길로 가는 도정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 진리의 말씀인 깨달음의 길잡이는 모든 경전에 수록되어 있어 일상의 범부로서야 경전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깨우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경전의 말씀들은 깨우침의 길잡이일뿐 그 말씀이 길의 본체는 아니다. 마치 손가락은 달이 있는 곳을 가리켜 달을 찾게 했을 뿐이지 손가락 끝이 달이 아닌 것과 같다. 이 시 역시 이렇듯 법의 실체를 찾는 길잡이를 제시하고 있다.

면 그 말씀에 매달리지 말고 법체의 참모습에 기뻐해야 할 일이다. 달을 보았으면 손가락을 잊을 것과 같다. 그러나 법체의 실상이 무엇인가. 인간세상의 범상한 삼 그 자체일 수는 없는 것인가. 손가락의 인도로 달을 찾아 달의 변화에 매달려 있다 보면, 달도 지고 달아 그 실상을 잃고 만다. 그러므로 의형의 달에 집착하면 내면의 실상은 또 잃는다. 차라리 손 끝과 달을 모두 잊은 망녕의 경지, 이것이 바로 여려한 법체의 실상이 아닌가.

모든 것을 여의고 범상한 일상사로 되돌아올이 바로 삼의 실체요 그것이 모든 법의 근원이 아닌가. 배고프면 밥이 생각나고 피곤하면 잔다고 하는 것이 가장 범속한 일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삼의 실체요 가장 때묻지 않은 구미없는 본 모습의 드러남이 아닌가. 손가락도 달도 잊은 상태, 한 일도 없음이 맑은 본 마음이 아닌가.

이종찬 (동국대 교수)

한·몽작가 1백여명 초대전

자유미술인작가회, 12일부터 갤러리 '터'

대한민국 자유미술작가회는 광복50주년을 기념해 한국과 몽골작가 1백여명이 참가하는 초대전을 갖는다. 12일부터 18일까지 갤러리 터에서 개최되는 이 초대전에는 한국측의 김부자 김중주 신화수씨등 60여명의 작가와 몽골의 원로작가 현재대학교수등 40여명이 참가한다.

몽골의 소년소녀 가장들이 '전통고전발표회'가 지난달 24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렸다. 부처님마음을 청년회와 실상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공연에서 김정은 '한량무'와 '지성승무' '연등나래무'를 특유의 춤사위로 선보였다.

법고등 불교의식 시현 '나눔의 춤 50년' 공연

부산시립무용단이 지난달 21일 부산 문화회관에서 '나눔의 춤 50년'을 무대에 올렸다. 전통적인 불교의식 무용작법을 활용한 이번 정기공연에서는 광복 반세기를 맞아 민족의 아픔을 풀이켜보면서 희생자들의 영혼을 달래고 새로운 출발을 기원하는 의식을 춤사위로 펼쳐보였다.

유광상씨 개인전

불두(佛頭) 그리기로 잘 알려진 유광상씨가 전원미술관 개관을 앞두고 기념전을 갖는다.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안국동로터리 백상기념관에서 열리는 이 전시회에서 유씨는 부처님 얼굴상과 풍경화등 신작을 선보인다.

'95 불교음악의 대향연

봉녕사 우담화합창단

수원 봉녕사 우담화합창단(단장 이숙자)이 구민 '95 불교음악의 대향연이 지난 1일 오후 7시30분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공연에서 우담화합창단은 '한마음을 잇는다' '부처님 오신 날에' 등을, 중창단은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등을 화창했다. 또 시명스님이 특별 출연. '청산은 나를 보고' '묵연화' 등을 불렀으며 한남대 사물놀이반의 사물놀이 공연도 펼쳐졌다.

김덕명용 지성승무 공연

경남도지정 무형문화재 한량무 예능보유자인 학산 김덕



할일철석을 앞두고 견우직녀의 사랑과 민족 고유의 정서를 있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7월11일 지선스님의 통일강연을 시작으로, 23일 탑골공원과 조계사에서 열리는 대한불교 청년회의 <통일맞이 불교청년 칠석문화제>는 남북불교도 공동법회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통일대동제는 정오 탑골공원에서 무차대회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1부에서는 △칠석떡 나누기 △칠석문화제 거리홍보 △북녘동포 및 함께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편지쓰기 △칠석부채 배포를 통해 일반시민에게까지 통일 분위기를 확산시킨다. 이어 '분마당'에서

통일맞이 칠석 문화제 열린다

불자 인연맺기·북녘에 편지쓰기등 다채

는 참여한 청년단체들의 풍물과 노래가 함께하는 어울마당이 마련된다. 또한 통일나무가꾸기, 민족의 만남을 실현하는 청홍색 띠 잇기, 통일

한여름밤을 통일분위기 고조에 일조한다. 이밖에도 봉은사 청년회와 불광사에서는 '불자인연 맺어주기' 캠페인을 벌인다. 청신

주교 받으며 청년들의 사교문화처럼 되어버린 서구의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를 한국화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기다. <필>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복원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강원도 정선군은 지난달 28일 1억6천만원 들여 고한을 정암사(淨巖寺)내 7층 수마노탑(水摩羅塔·보물 제410호)을 전면 해체된 기단부 석축을 보강한 다음 탑 복원공사에 들어가 올해 말 완공기로 했다. 또한 탑이 전면 해체되면 정밀조사를 병행해 보존상태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신라 사적기에 의하면 수마노탑은 선덕여왕 12년(643) 자장율사가 정암사를 창건후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해 건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지난 72년 전면보수 이후 6~7

년전부터 탑의 기단부가 침하되고 지대석의 균열로 1, 3, 4층의 탑신과 옥개부면석이 이탈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영월 흥령선원지 고려 거북상 발견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흥령선원지에서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돌거북기단석이 발견돼 교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영월향토사연구회(회장 임흥용)와 강원대박물관팀은 지난달 21일 통일신라시대말 5교9산선문(五敎九山禪門) 중 사자산백의 일문인 흥령선원지 탑

문화재소식

사에 나서 길이 1백79cm 전면 1백71cm 두께 54cm 머리부분 30cm의 돌거북기단석을 찾아냈다.

의상대 복원 완공

불교위험으로 해체된 의상대 복원공사가 지난달 말 완공됐다.

양양군은 지난 4월1일 9천8백만원의 공사비로 기둥 일부 분 부식이 심해 한쪽으로 기울어짐 등의 붕괴위험으로 지난해 11월3일 해체된 낙산사 의상대(강원도유형문화재 제48호) 복원공사에 착공했다.

불교문화사연구회 회원자격 개방

'동국대 출신' 탈피 모든 학자로 확대

한국불교문화사연구회(회장 이종찬)가 '동국대 출신'으로 한정했던 회원의 자격을 '불교문화에 관심있는 모든 학자'로 확대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연구회는 오는 10일경 임원과 회원들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갖고 회원 자격의 개방과 정기간행물(학회지) 발간, 정기 세미나 계획등을 논의한다. 연구회의 한 임원은 "91년 창립이후 학술서 발간과 세미나를 꾸준히 개최해 오며 일종의 역할을 해 왔지만 보다 확대된 조직과 정례적인 사업추진을 해나갈 계획"이라

고 밝혔다. 지난 3월 임원진을 개편한 연구회는 이번 연찬회를 통해 조직강화와 목적사업의 정례화 및 회원간의 소식지, 학회지 발간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회는 8월중에 지난해 가을에 개최했던 '불교와 민족' 세미나 발표 논문을 책으로 묶어 내용을 계획과 문헌' 세미나 개최 계획도 이미 수립해 놓은 상태다.

불교문화사연구회는 91년에 발족, 동국대출신의 1백50여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진리의 전화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 · 구름사 부실 인생 상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지혜의 문이 있습니다. 진리의 전화가 있습니다. 상담전화 (02) 579-3033

일상의 평범을 거부하고 세계속에 뛰어들어 자신의 꿈을 이룩한 大韓國 人 최계월의 불꽃같은 인생드라마

그들은 나를 칼리만탄의 왕이라 부른다

권태하 실명소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옛 브르네오)에 정장복도만한 정글을 개척, 원목·조림사업을 하는 한국인을 아가. 인근 자바해 마두라 지역에 햇살을 밝히고 '産出 한국'의 국가적 과업에 마지막 승부를 거는 사업가의 에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동경 시절 낮에는 아무 자의 두목들을 휘어잡고 밤이면 일본 정계 거물들과 천하대세를 논했던 통 큰 사나이. 서슬퍼런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 건설사관(소위) 입관식을 앞두고 '나는 이 전쟁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기개와 배짱의 사나이 일찍이 수카르노·수하르토 등 인도네시아의 전·현직 대통령, 기사·사토·미키·후쿠다·스즈키·다나카 등 일본 역대 수상들과 맺은 교분을 바탕으로 이미 수십 년전 사업의 영역을 국제무대로 넓힌 세계인 최계월 이제 그가 바꾼 일상속에서 자꾸만 왜소해지는 우리들에게 뜨거운 메시지를 전한다.

한국인이여, 그대 가슴에 꿈을 품어라. 그리고 그것을 꼭 이루어라.

中央日報社

신원판 / 상 254쪽, 하 259쪽
각권 5,000 원
판매 / 751-9468